

김현미 장관, “휴게소 상생협력 방안 마련” 당부

- 27일 시흥하늘 휴게소 찾아 상생협력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당부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(금) 시흥하늘 휴게소를 찾아 운영업체와 입점매장 간 상생협력 사례와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휴게소 매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하였다.

□ 이날, 김 장관은 도로공사의 휴게소 피해 현황 및 지원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, 매출액 감소*로 어려움을 겪는 휴게소 업계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,

* 휴게소매출액: (2월3주) △36%→(4주) △67%→(3월1주) △46%→(2주) △43%→(3주) △36%

○ “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도로공사, 휴게소 운영사, 입점매장이 힘을 합쳐야 할 때”라고 강조하며,

○ “휴게소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도로공사는 운영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운영업체에서도 입점매장과의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□ 아울러, 김 장관은 휴게소 방역 현장과 매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휴게소 종사자들을 격려하며,

○ “고속도로 휴게소는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시설인 만큼, 긴장을 놓치지 말고 방역체계를 재점검하여 생업 등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”을 강조하였으며,

○ 또한, “휴게소 이용객에게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에 힘써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0. 3. 27.

국토교통부 대변인